

2015. 6. 13. 서울시 7급[국어]

배미진 교수
월비스고시학원
www.baemijin.com

총평

안녕하세요. 월비스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배미진입니다.

5월 말, 뜻하지 않게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두려움에도 노력하신 결실을 거두고자 끝까지 시험장에 가서서 최선을 다한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서울시 7급 시험은 이런 어려움을 뚫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야속한 시험이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몇몇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어서 점수가 고득점이 많이 나오는 시험은 아닐 것 같습니다.(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의 책형은 A형입니다.)

문법 문제는 대체로 쉬운 편이었습니다.

‘문장 부호, 품사, 띄어쓰기, 맞춤법 39항과 57항, 문장의 짜임’은 평이한 수준의 문제여서 공부 조금이라도 한 학생들이라면 무난히 맞혔을 것입니다. 단지 3번 관형어 문제는 보기 하나가 고민을 하게 했을 것이고 4번 음운 현상 문제는 예제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독해는 매우 쉽게 나와 독해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쉬웠던 이전 서울시 시험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한자 문제도 서울시 9급에서 3문제 나온 것에 비해 2문제로 비중이 낮긴 했으나, 2문제를 틀렸을 경우 다른 것을 다 맞혀도 90점을 넘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2문제 또한 중요한 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자성어 ‘선남선녀’ 문제는 한 번쯤 봤더라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자 ‘地’의 쓰임을 묻는 한자 어휘문제는 많이 생소해서 실제로 어려움을 느낀 학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늘 서울시 시험의 관건이었던 문학 문제는 어땠을까요? 문제가 공개되고 올해까지 문학 문제가 3~5 문제 사이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공개가 된 이후에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은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들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이 9급에서는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맞히는 문제이고, 7급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문학관이나 작가의 유적과 그 소재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한 문제가 정말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다음에 이 문제가 다시 나올지도 몰라서 이 문제를 다 외우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9급에 서울시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은 벌써 두 번째 같은 문제 유형의 출제이니 중요 작품 위주로 봐 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들이 다 쉬웠던 것도 아닙니다. 11번처럼 작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그 작가의 시도 알아야 하는 문제 역시 꽤나 수험생을 헛갈리게 했을 것입니다.

역시 고전 문학은 한 번이라도 공부한 수험생과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을 확실하게 갈라놓는 문제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하지 않고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총평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문법과 고전문학은 우리 일상생활과 비교했을 때 ‘보험’과 같습니다. 최소한의 방어책인 것이지요. 알면 맞히고 모르면 틀리는 것이 문법과 고전문학입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달 뒤에 국가직 7급 시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직 7급 유형에 맞는 전략과 시간표를 짜시고 또 다시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지러운 상황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시험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 2015년 6월 13일 서울시 7급

영역	2015년도		
	문항 수	출제 영역	
문법	3	한글 맞춤법 통일안	
		문장부호(쌍점의 표기)	
		39항(준말의 형태)	
	1	57항(단어의 쓰임)	
		품사 (의존명사와 보조용언의 구별)	
		문장 성분 (관형어)	
		음운의 변동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도치)	
1	낱말의 짜임 (합성어 파생어의 구별)		
	띄어쓰기		
	문장의 짜임 (이어진 문장과 안은문장의 구별)		
합계	9		
한자	1	한자어 (표기)	
	1	한자성어 (의미)	
합계	2		
어휘	1	어휘 (관용구의 의미 확장)	
합계	1		
독해	1	오류의 유형 (순환의 오류)	
	1	개요표 작성	
	1	내용의 일치 불일치	
합계	3		
문학	3	고전 문학	향가 (신라의 향가 구별)
			흥미어천가 (현대어 풀이)
		정과정	
	1	현대 문학	현대시(윤동주의 작가설명과 작품)
1	서울에 소재한 문학관 및 작가의 유적 소재지		
합계	5		

1. 다음 중 문장 부호와 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운뎃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 ② 쌍점(:)은 마침표의 일종으로 작은 제목 뒤에 간단한 설명을 붙일 때 쓰인다.
- ③ 줄표(—)는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할 때 쓰인다.
- ④ 대괄호([])는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 쓰인다.

정답 ②

★정답풀이

쌍점은 ‘;’ 이 아니라 ‘:’ 으로 표기해야 하며, 쌍점(:)은 마침표가 아니다.

표제어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쓰거나, 회록 따위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시(時)와 분(分), 장(章)과 절(節) 따위를 구별할 때, 의존 명사 대(對)가 쓰일 자리에 쓰인다.

쌍점(:)

- (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 예 문방사수: 종이, 붓, 먹, 벼루
 - 예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 예 흔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남궁, 선우, 황보)
 - 예 올림픽(♯): 음의 높이를 받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
- (2) 회록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 예 김 과장: 난 못 잡겠대.
 - 예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 (3)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 예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 예 두시연재 6:15(두시연재 제6권 제15장)
- (4) 의존명사 ‘대’ 가 쓰일 자리에 쓴다.
 - 예 65:60(65 대 60)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

[붙임]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3)과 (4)에서는 쌍점의 앞뒤를 붙여 쓴다.

★오답풀이

- ① 가운뎃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0)
 - 예 민수·영희, 선미·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웃놀이를 하였다.
 - 예 지금의 경상남도·경상북도, 전라남도·전라북도, 충청남도·충청북도 지역을 예부터 삼남이라 일러 왔다.
 - ③ 줄표(—)는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할 때 쓰인다. (0)
 - ㉠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이때는 줄표 대신 심표를 쓸 수 있다.
 - 예 나는 — 솔직히 말하면 —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0)
 -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0)
 - ㉡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쓴다. 다만,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다.
 - 예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 —’ 이다. (0)
 - 예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 이다. (0)
 - 예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0)
 - 예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0)
- [붙임] 줄표의 앞뒤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 ④ 대괄호([])는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 쓰인다. (0)
 - 예 낱말[單語], 손발[手足]

2.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오늘은 비가 올 듯하다.
- ②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 ③ 아기는 아버지를 빠다 박은 듯 앉았다.
- ④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

정답 ①

★정답풀이

‘듯하다’ 는 보조용언(형용사)이다. 나머지 예제는 의존명사이다.

■ 듯하다[트타다]: 「보조형용사」 ((동사나 형용사, 또는 ‘이다’ 의 관형사형 뒤에 쓰여))

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말. ㉠듯하다. ㉡내일 비가 올 듯하다.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이어지는 단어는 체언이다. 그러나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체언이 아니라 보조용언(듯하다, 듯싶다, 성하다, 성싶다, 만하다, 법하다, 뵈하다, 척하다, 체하다, 양하다)이 놓이는 특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품사 구별 시, 주의해야 한다.

[예외] ㉢듯하다, ㉣듯싶다, ㉤성하다, ㉥성싶다, ㉦만하다, ㉧법하다, ㉨뵈하다, ㉩척하다, ㉪체하다, ㉫양하다

일부 의존명사 ‘듯, 성, 만, 법, 뵈, 척, 체, 양’ 에 접미사 ‘-하다’ 가 결합되거나 형용사 ‘싶다’ 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복합어(단어)를 보조용언으로 등재하였는데 이 보조용언들은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놓여 쓰인다.

이 보조용언들은 앞 보조용언과 붙여 쓸 수 있다. (맞춤법 47항) ㉬죽을V뵈하다(0), 죽을뵈하다(0)

단, 조사가 끼어들면 조사 앞의 ‘듯, 성, 만, 뵈, 척, 체, 양’ 을 의존명사로 보므로 앞 본용언과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 죽을V뵈도V하다

■ 만: 「의존명사」

「1」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 ㉮그가 화를 낼V만도V하다./ 이 음식은 정말 꼭 한번 먹을V만은V하다.

「2」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 ㉯이 일은 내가 할V만은V하다/그런 것쯤은 참을V만도V한다.

■ 만하다「보조형용사」

((용언 뒤에서 ‘-을 만하다’ 구성으로 쓰여))

「1」어떤 대상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타당한 이유를 가질 정도로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

㉰그가 화를 낼V만하다.(= 낼만하다)

이 음식은 정말 꼭 한번 먹을V만하다.(= 먹을만하다)

「2」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

㉱이 일은 내가 할V만하다/그런 것쯤은 참을V만하다.

★오답풀이

① 좋을(용언)V대로(의존명사)

: 용언 뒤의 ‘대로’ 는 의존명사이고, 체언 뒤의 ‘대로’ 는 조사이다.

㉲아는(용언)V대로(의존명사)V말해라./느민V대로(의존명사)V적다/지칠V대로(의존명사)V지켰다.

㉳법대로 처리해라. [‘법(체언)’ 뒤의 ‘대로’ 는 조사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너(체언), 나(체언)’ 뒤의 ‘대로’ 는 조사임]

■ 대로 「의존명사」

「1」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들은 대로 이야기하다/시키는 대로 하다/아는 대로 설명하다

「2」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내일 동이 트는 대로 떠나겠다.

「3」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즉즉.

㉶기회 있는 대로 메모를 정리하다/떠나는 대로 찾아보다/말하는 대로 다 주다/소재를 있는 대로 찾아보다/달치는 대로 먹어 치우다

「4」 ((‘대로’ 를 사이에 두고 같은 용언이 반복되어, ‘-을 대로’ 구성으로 쓰여)) 어떤 상태가 매우 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지칠 대로 지친 마음/약해질 대로 약해지다/그 둘의 애정은 식을 대로 식었다.

「5」 ((‘-을 수 있는 대로’ 의 구성으로 쓰여))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다/될 수 있는 대로 들어라.

㉔ 조사 '의' 는 관형어를 만드는 중요한 격조사이다. (0)

예 우리의 집

4. 국어의 음운 현상에는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도치가 있다. 다음에 제시된 단어들 중 동일한 음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끼리 묶인 것은?

㉑ 굳이	㉒ 끊더라	㉓ 뒷일	㉔ 무릎
㉕ 배꼽(복)	㉖ 싫어도	㉗ 있지	㉘ 잡히다

- ① ㉑, ㉒, ㉕
- ② ㉑, ㉒, ㉓
- ③ ㉒, ㉕, ㉘
- ④ ㉒, ㉕, ㉘

정답 ②

★정답풀이 대치-㉑, ㉒, ㉓

㉑ 굳이: [구디→구지] ('ㄷ' → 'ㅈ' 대치)

■ 대치(代置): 한 음운(음소)이 다른 음운(음소)으로 바뀌어 대체됨

㉒ 끊더라: [끈터라] ('ㅎ' + 'ㄷ' 음 → 'ㄷ' 음 축약)

■ 축약(縮約): 2음운이나 2음절이 한 음소나 한 음절로 되는 현상.

㉓ 뒷일: [뒨닐] ('ㄴ' 음 첨가)

■ 첨가: 한 음소가 덧붙이는 현상

㉔ 무릎: [무릅] ('ㅍ' → 'ㅂ' 대치)

㉕ 배꼽(복): '복(ㅂ/ㅅ/ㄱ)' 이 '꼽(ㄱ/ㅅ/ㅂ)' 으로 바뀜 → 모음 앞의 음소와 모음 뒤의 음소가 바뀜

■ 도치(倒置): 한 단어 안에서 두 음소(音素)나 음절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일.(도치의 예는 매우 드물다)

예 복 > 곱 > 배꼽

㉖ 싫어도: [시려도] ('ㅎ' 탈락)

■ 탈락(脫落): 둘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음절이나 음운(음소)이 없어지는 현상.

㉗ 있지: [찌] ('ㅅ' → 'ㄷ' 대치, 'ㅈ' → 'ㅊ' 대치)

㉘ 잡히다: [자피다] ('ㅂ' + 'ㅎ' → 'ㅍ' 축약)

5. 다음 중 파생어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동화책 - 책상
- ② 맨손 - 울보
- ③ 시동생 - 어깨동무
- ④ 크다 - 복스럽다

정답 ②

★정답풀이

② 맨-손: 접두사 + 어근 ⇒ 맨손(파생 명사)

울-보: 어근 + 접미사 ⇒ 울보(파생 명사)

★오답풀이

① 동화-책: 어근 + 어근 ⇒ 동화책(합성 명사)

책-상: 어근 + 어근 ⇒ 책상(합성 명사)

- ③ 시-동생: 접두사 + 어근 ⇒ 시동생(파생 명사)
어깨-동부: 어근 + 어근 ⇒ 어깨동무(합성 명사)
- ④ 크다: 어근 하나인 단일어.
복-스럽다: 어근 + 접미사 ⇒ 복스럽다(파생 형용사)

<p>■ 맨-: 「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맨눈/맨다리/맨땅/맨말/맨주먹.</p> <p>■ -보 22: 「접사」 「1」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괴보/싸움보/잡보/털보. 「2」 ((몇몇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예 먹보/술보/재보. 「3」 ((몇몇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특징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땅딸보/똥뚱보.</p> <p>■ -보 23: 「접사」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짝여 보인 것’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말보/심술보/울음보/웃음보.</p> <p>■ -보(補)24: 「접사」 ((관직 또는 직급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보좌하는 직책’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서기보/주사보/차관보/학장보.</p> <p>■ 시(嚮)-: 「접사」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남편의’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예 시아버지/시어머니/시동생/시누이.</p> <p>■ -시(視): 「접사」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렇게 여김’ 또는 ‘그렇게 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등한시/백안시/적대시.</p> <p>■ -스럽다: 「접사」 ((일부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예 복스럽다/격정스럽다/자랑스럽다/거북스럽다/조잡스럽다.</p>

6. 다음 중 <보기>에서 보이는 오류의 유형과 같은 오류가 있는 것은?

“그 놈은 나쁜 놈이니 사형을 당해야 해. 사형을 당하는 걸 보면 나쁜 놈이야.”

- ①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② 국민의 67%가 사형 제도에 찬성했다. 그러므로 사형 제도는 정당하다.
③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국어 성적이 좋은 걸 보니 헤람이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구나.
④ 이번 회장 선거에서 나를 뽑지 않은 것으로 보아 너는 나를 아주 싫어하는구나.

정답 ①

★정답풀이 <보기>의 오류 유형은 순환 논증의 오류이다.

<p>■ 순환 논증의 오류: 주장하는 바를 근거로 제시하는 오류. [주장] “그 놈은 나쁜 놈이니 사형을 당해야 해.” (왜 나쁜 놈인지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 “사형을 당하는 걸 보면 나쁜 놈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로 제시한 것이 곧 주장의 내용임) - 순환 논증의 오류</p> <p>① [주장] 우리는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 되는 사회[화합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분열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화합을 제시한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 분열은 화합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로 제시한 것이 곧 주장의 내용임) - 순환 논증의 오류</p>
--

구별 “순환 논증의 오류와 혼동하기 쉬운 원칙 혼동의 오류

■ 원칙 혼동의 오류: 먼저 지켜야 할 원칙과 그에 뒤따라 지켜야 할 다른 원칙을 혼동하여 원칙을 잘못 따를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그르하다고 해서 특수한 경우에도 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잘못 생각하는 오류이다.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할 원칙이 다른데도 먼저 세워 둔 원칙과 뒤에 다르게 적용해

야 할 원칙을 혼동하여 생기는 오류이다.

- ㉑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원칙]. 수업 중에 성리가 아파서[특수한 상황] 119에 전화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특수한 상황에 적용해야 할 원칙이 있음에도 먼저 세워 둔 원칙을 적용함]-원칙혼동의 오류
- ㉒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원칙]. 그러므로 지하철 안에서 라면을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 ㉓ 백지장도 맞들면 낫은 법이고, 서로 돕는 것은 우리의 전통 미덕이다[원칙]. 따라서 대학 입시 시험에서[특수한 상황] 우리는 서로 도와 문제를 풀도록 하자.
- 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라고 한다[원칙]. 따라서 의사가 환자에게[특수한 상황]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다.
- ㉕ 빌린 물건은 주인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어야 하는 법 아닌가[원칙]. 그러니 그 친구가 화가 나서 자기 아내를 죽이려는 걸 알았지만[특수한 상황] 난 둘 어떻게 하겠나. 자기 칼을 돌려달라니 돌려줄밖에.

★오답풀이

② ■ 대중(군중, 여론)에 호소하는 오류: 대중의 감정, 군중 심리, 열광 등에 호소하거나 여러 사람이 동의한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오류.

- ㉑ 국민의 67% [대중이 동의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함] → [주장] 사형 제도는 정당하다.
- ㉒ 이 책은 500만 부나 팔렸다[근거]. → 이 책은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 ㉓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단[근거]. → [주장] 이 보험의 보장은 매우 좋다.

③ ■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제한된 몇 개의 사례, 충분하지 않은 사례, 대표성을 결여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오류.

- ㉑ 영희가 국어 성적이 좋은 걸 보니 국어 공부를 잘한다[사례 하나] → [주장-일반화] 영희는 모든 공부를 잘한다.
- ㉒ 한국인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빨리 달라고 독촉한다[사례1]. 운전할 때도 앞차가 늦게 가면 앞지르거나 경적을 울려 댄다[사례2]. → [주장] 따라서 한국인은 매우 성격이 급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④ ■ 흑백논리의 오류: 모든 문제를 흑과 백, 선과 악, 득과 실의 양 극단으로만 구분하고 중립적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편중된 사고방식이나 논리.

“이번 회장 선거에서 나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아주 싫어하는구나.” 이 주장의 근거는 “회장 선거에서 나를 뽑으면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 ㉑ 수프가 맛이 없어요? 당신은 수프가 너무 차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펄펄 끓여오면 맛있다고 좋아하겠군요.
- ㉒ 그녀는 나에게 싫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 나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다.

7. 다음은 ‘직원들의 기부 참여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이다. ㉑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글쓰기 계획>

- 현상: 우리 회사 직원들의 기부 참여도가 낮음
- 문제 의식: 관심이 없어서일까? 방법을 몰라서일까?
- 조사 내용: 기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직원들의 기부 참여 유형
- 조사 결과: 기부 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은 높으나 직원들이 참여하는 기부 유형은 두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음
- 결과 분석: 인식과 참여의 괴리는 기부 유형에 대한 직원들의 정보 부족 때문임
- 서술 방향: (㉑)

- ① 직원들의 실제 기부 참여도가 낮은 것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 특정 기부 유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제시한다.
- ② 기부에 대한 직원들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기부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환기한다.
- ③ 기부 참여도가 낮았던 이유는 직원들이 다양한 기부 유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④ 직원들이 생각은 있지만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의식과 실천의 합일을 촉구한다.

정답 ③

★정답풀이 직원들의 기부 참여가 낮은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부 유형에 대한 직원들의 정보가 부족해서이므로 이 글의 서술 방향은 직원들이 다양한 기부 유형을 몰랐기 때문임을 밝히고 직원들의 기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참여 프로그램 정보를 알려주는 방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오답풀이

- ① 조사를 한 결과 분석 내용에는 기부 참여도가 낮은 이유로 ‘직원들의 정보 부족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결과 분석에는 기부 참여도가 낮은 이유로 ‘특정 기부 유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①번의 내용은 서술 방향에 적절하지 않다.
- ② 조사 결과 기부 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은 높았으므로 직원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④ 직원들 기부 참여도가 낮은 것은 기부에 대한 인식(의식)은 있는데, 구체적인 기부 방법이 몇 가지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다는 것은 글의 서술 전개 방향에 맞지 않다.

8. 다음은 어느 신문의 독자 투고 글이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피땀 어린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 결실로 국민 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렀고, 경제 성장률 또한 세계 16위에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국민성은 어떠할까. 아직도 차량 문틈 사이로 함부로 담배꽂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기는커녕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일삼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거리낌 없이 무단횡단을 하는 아주머니들을 볼 때면 착잡한 마음마저 들기도 한다.

물론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기초 질서 정신이 자리 잡지 않고는 올바른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무질서라는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지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 우리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① 경제 성장에 비해 국민성이 낮아 걱정이다.
- ②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 ③ 기초 질서 정신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 ④ 기초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많다.

정답 ②

★정답풀이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彌縫策)-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였으므로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한 ②번은 옳고 일치하지 않는다.

[참고]

- 미봉책(彌縫策):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計策). ≒ 미봉지책.
- 고식지계(姑息之計):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피나 방법. 한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임시로 둘러맞추어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 내는 계책을 이른다.
- 동족방뇨(凍足放尿):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뜻으로, 잠시 동안만 효력이 있을 뿐 효력이 바로 사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꺾는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춤을 이르는 말. = 상석하대.

9. 다음의 밑줄 친 ㉠, ㉡을 현대어로 옳게 바꾼 것은?

太子(태자) 하 히 샤 兄(형)기 디 일어시 聖孫(성손) 내시니 다
- 「용비어천가」 -

- ① ㉠ 가리시어 ㉡ 이루어지시거늘
- ② ㉢ 가리시어 ㉣ 일어나시거늘
- ③ ㉤ 말씀하시어 ㉥ 이르시거늘
- ④ ㉦ 말씀하시어 ㉧ 일어나시거늘

정답 ①

★정답풀이

홍비어천가 [제8장]

太子 하 히 사 兄기 디 일어시 聖孫 내시니 다.
世子 하 히 사 帝命이 리어시 聖子 내시니 다.

[현대어 풀이]

태자(계력)를 하늘이 가리시어 그 형(태백)의 뜻이 이루어지시매, 그의 손자 무왕을 내리신 것입니다.

세자(환조)를 하늘이 가리시어 원나라 황제의 명령이 내리시매, 이 태조를 내신 것입니다.

주제: 천명에 의한 이 태조의 탄생

10. 다음 중 신라의 향가가 아닌 것은?

- ① 천수대비가
- ② 현화가
- ③ 처용가
- ④ 속세가

정답 ④

★정답풀이

‘속세가(宿世歌)’는 백제의 노래이다.

宿世結業 전생에서 맺은 인연으로

同生一處 이 세상에 함께 태어났으니

是非相問 시비를 가릴 양이면 서로에게 물어서

上拜白來 공경히 절한 후에 사죄러 오십시오.

2000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부여 능산리 고분 연 절터에서 23개의 목간이 발굴되었다. 대부분 사찰 이름, 관직명, 인명, 행정구역명, 삼림과 전답 관리에 관련된 문구가 기록돼 있다. 그 중 하나인 ‘속세’라 쓰여있는 백제가요 목간이다. 김영욱 교수에 의해 이 목간이 발견되었는데 AD 6세기~7세기 초 백제인이 이두로 쓴 최초의 백제시가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목간을 해독, ‘속세가(宿世歌)’라는 이름을 붙였다.

구지가·황조가·공무도하가 등과 같이 4언4구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신라 향가와 같은 초기의 형태로 공식문서가 아닌 정서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교 연기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백제의 현존 시가로 조선시대 《악학궤범》에 한글로 기록된 〈정읍사〉가 유일했는데, 〈속세가〉의 발견으로 한국문학사에 새 장이 마련되었으며 백제가 이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학계의 정설에 잘못이 있음을 증명하게 되었다. 조동일 교수는 “우리나라 고대 시가들이 모두 후대 문헌을 통해 전하는데 이 시가는 목간에 기록된 당대의 노래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 라고 말했다.

-출처: 주간한국문학신문, 2015. 4. 29.

★오답풀이

- ① 천수대비가 - 신라. 10구체 향가.
- ② 현화가 - 신라. 4구체 향가.
- ③ 처용가 - 신라. 8구체 향가.

<참고>

※ 삼국유사(고려시대 문헌)에 실려 전해지는 신라의 향가 14수.

- ㉠ 4구체 향가: 서동요, 풍요, 현화가, 도솔가
- ㉡ 8구체 향가: 처용가, 모죽지랑가
- ㉢ 10구체 향가: 찬기파랑가, 안민가, 제망매가, 해성가, 도천수대빈가, 원왕생가, 원가, 우적가

11. 다음 글에서 말하는 ‘이 작품’은?

그가 창씨개명계를 제출한 것은 이 작품을 쓴 지 닷새 만이다. 일본 유학을 결정하고 그걸 위해선 자신의 손으로 창씨개명계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각오했을 때, 그 뼈아픈 욕됨으로 인해 쓰인 것이 곧 이 작품이라는 주장이다. 이 시는 오랫동안 역사의식이 내포된 자기 성찰의 시라는 정도의 일반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의 시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현실에 의거하고 있는 강력한 저항시가 바로 이 시이다.

- ①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다. /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 ②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서. //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 ③ 풀이 눕는다. /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 풀은 눕고 / 드디어 울었다. /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 다시 누웠다. // 풀이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 ④ 파란 녹이 긴 구리 거울 속에 /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정답 ④

★정답풀이

윗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가는 ‘윤동주’이다. ④번 작품이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다.

★오답풀이

- ① 서정주 ‘자화상’ ② 이육사 ‘절정’ ③ 김수영 ‘풀’

12. 다음 고전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내 님을 그리 와 우니다니
 山(산) 접동새 난 이슥 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아으
 잔월호성(殘月曉星)이 아 시리이다.
 녀시라도 님은 녀져라 아으
 베키터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히마리신며
 웃븐며 아으
 니미 나 마 니 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 -

- ①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담고 있다.
- ②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담담한 마음을 담고 있다.
- ③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심경을 담고 있다.
- ④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담고 있다.

정답 ①

★정답풀이

고려 의종 때 정서(鄭錡)가 지은 노래. 역모에 가담하였다는 누명을 쓴 작자가 유배지 동래(東萊)에서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산 두견이에 비유하여 임금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노래이다. 10구체 향가의 잔영을 보여 주는 작품이며, 《악학궤범》에 실려 있다.

‘정과정’의 현대어 풀이

내가 님(임금)을 그리워하여 울고 다니는 것은
 저 산의 절동새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시며 허황된 줄(을)
 지는 달과 초성(새별)은 아실 것입니다.
 낮이라도 입은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우기시던 이가 누구십니까?
 (저는)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못사람의 말(남을 헐뜯는 말)입니다.
 슬픔니다
 입에서 나를 이미(벌써) 잊으셨습니까?
 마십시오. 입이시여, (마음을) 돌려 들으시어 사랑해 주십시오.

13.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맞춤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밥상을 물렸다.
- ② 이번 수해로 우리 마을은 적잖은 피해를 봤다.
- ③ 집은 허름하지만 아까 본 집보다 가격이 만만찮다.
- ④ 그는 끝까지 그 일을 말끔케 처리하였다.

정답 ③

★정답풀이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 40항

울림소리 뒤의 ‘하’는 ‘ㄱ’만 줄이고, 뒤의 예사소리 어미와 ‘ㅎ’을 줄여 거센소리로 줄여 쓸 수 있다.

예 만만하지(=만만치), 심심하지(=심심치) : [맞춤법 40항 본항]

‘-지 않-’의 준말은 ‘-잖-’, ‘-지 않-’의 준말은 ‘-잖’이다. [맞춤법 통일안 제39항]

예 만만치 않다(=만만찮다), 심심치 않다(=심심찮다), 적지 않은(=적잖은), 섭섭지 않다(=섭섭찮다)

★오답풀이

- ① 숟가락 (0)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예 반질꼬리, 이튿날, 사흘날, 나흘날, 며칠날, 삼십날, 선달, 숟가락, 풀소, 선부르다, 잡다듬다, 잡다랄다

- ② 적잖은 (0)

‘-지 않-’의 준말은 ‘-잖-’이므로 ‘적지 않은’의 준말은 ‘적잖은’이 맞다. [맞춤법 통일안 제39항]

예 적지 않은(=적잖은), 섭섭지 않다(=섭섭찮다), 넉넉지 않다(=넉넉찮다), 익숙지 않다(익숙찮다)

<참고> 안울림소리 뒤의 ‘하’는 통째로 줄여 쓴다. [맞춤법 40항의 붙임 2].

예 섭섭하지(=섭섭지), 익숙하지(=익숙지), 넉넉하지(=넉넉지) : [맞춤법 40항의 붙임 2].

주의, ‘못지않다(못잖다)’는 합성어 한 단어이므로 띄어쓰기하지 않아야 한다.

■ 못지않다 : 「형용사」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뒤지지 않다.

예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학력은 중졸이지만 실력은 대졸 못지않다.

- ③ 말끔케 (0)

울림소리 뒤의 ‘하’는 ‘ㄱ’만 줄이고, 뒤의 예사소리 어미와 ‘ㅎ’을 줄여 거센소리로 줄여 쓸 수 있다. [맞춤법 40항 본항]

예 말끔하게(=말끔케), 가능하게(=가능케), 편하게(=편케), 만만하지(=만만치), 심심하지(=심심치)

14.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을 반듯이 그어라.
- ② 눈을 감고 분노를 삭였다.
- ③ 너 왜 그렇게 내 속을 씩히느냐?
- ④ 사우나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있었다.

정답 ③

★정답풀이

속을 씩히다 (X) → 속을 씩이다.

■ **씩히다**: 「동사」 【…을】 ‘씩다[2]’의 사동사.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을 몹시 괴롭고 힘든 상태가 되게 하다.
 예) 부모 속을 좀 작작 **씩어라**.

■ **씩히다**: 「동사」 【…을】
 「1」 ‘씩다[1] 「1」’의 사동사. 예) 음식을 **씩혀** 거름을 만들다.
 「2」 ‘씩다[1] 「4」’의 사동사. 예) 그는 시골구석에서 재능을 **씩히고** 있다./고가의 장비를 **씩히고** 있다.
 「3」 ‘씩다[3]’의 사동사. 예) 사람을 감옥에 넣어 **씩히다**.

★오답풀이

- ① 선을 반듯이 그려라. (0)

■ **반듯이**: 「부사」
 「1」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
 예) 그녀는 몸을 반듯이 누이고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다./머리단장을 곱게 하여 옥비녀를 반듯이 찌르고 치레를 한 그녀
 「2」생김새가 아담하고 말끔하게.

■ **반드시**: 「부사」 틀림없이 꼭. ㉠필코·필위(必爲).
 예) 반드시 시간에 맞추어 오너라./연행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비가 오는 날이면 반드시 허리가 쭈신다./지진이 일어난 뒤에는 반드시 해일이 일어난다.

- ② 눈을 감고 분노를 삭였다. (0)

■ **삭이다** 01: 「동사」
 【…을】 돈, 시간, 물건, 힘 따위를 소비하다.
 예) 밤중에 시계가 분침을 삭이는 소리만 요란히 들린다./신발 삭이고 이런 데 찾아다니기보다 저것을 가져가.

■ **삭이다** 02: 【…을】
 「1」 ‘삭다 「4」’의 사동사. 예) 돌도 삭일 나이에 그렇게 소화를 못 시켜서 어떻게 하나.
 「2」 ‘삭다 「5」’의 사동사. 예) 분을 삭이다/불쾌한 기분을 다 삭이다.
 「3」 ‘삭다 「8」’의 사동사. 예) 생각차는 기침을 삭이는 데 좋다./가래를 삭이는 데에 좋은 약

■ **삭히다**: 「동사」 【…을】 ‘삭다 「3」’의 사동사.
 예) 밥을 삭혀 끓인 감주/김치를 삭히다/멸치젓을 삭히다/민속주는 곡식을 삭혀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 ④ 사우나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있었다.(0)

■ **지그시**: 「부사」
 「1」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
 예) 지그시 밟다/지그시 누르다/눈을 지그시 감다/입술을 지그시 깨물다
 「2」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
 예) 아픔을 지그시 참다/나는 그의 태도가 여간 아니꼽지 않았지만 지그시 참았다.

■ **지긋이**: 「부사」

「1」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게. **㉠** 그는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인다.

「2」 참을성 있게 끈지게.

㉡ 아이는 나이답지 않게 어른들 옆에 지긋이 앉아서 이야기가 끝나길 기다렸다.

15.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먹을 만큼 떨어져 집에 갈거야.
- ② 이게 얼마만인가?
- ③ 저 도서관만큼 크게 지으시오.
- ④ 제 27대 국회의원

정답 ③

★정답풀이

체언 뒤의 ‘만큼’ 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맞다.

■ 만큼: 「조사」 ((체언이나 조사의 바로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만치[Ⅱ].

㉠ 영희가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명주는 부명만큼 질기지 못하다./나도 당신만큼은 할 수 있다.

■ 만큼: 「의존명사」

「1」 ((주로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 만치.

㉡ 먹을 만큼 떨어져 먹어라/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주는 만큼 받아 오다/망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중했다.

「2」 ((주로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거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 ≒ 만치.

㉢ 어른이 심하게 다그친 만큼 그의 행동도 달라져 있었다./까다롭게 검사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오답풀이

- ① 갈거야. (X) → 갈√거야. (O)
 : ‘거’ 는 ‘것’ 의 구어체이며, ‘것’ 은 명사(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다.
- ② 얼마만인가? (X) → 얼마√만인가? (O)
 :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인 ‘만’ 은 명사(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다.
- 만 「의존명사」 ((흔히 ‘만에’, ‘만이다’ 꼴로 쓰여))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 십 년 만의 귀국/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 만에 떠났다./그때 이후 삼 년 만이다./도대체 이게 얼마 만인가.
- ④ 제√27대 (X) → 제27대 (O)
 : ‘제(第)-’ 는 접두사이므로 뒤의 말과 붙여 쓰는 것이 맞다.

16. 다음 중 문장의 짜임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그 일은 하기가 쉽지 않다.
- ②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③ 철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 ④ 우리는 인간이 존귀하다고 믿는다.

정답 ②

★정답풀이

②는 절과 절이 연결어미로 이어진문장이고 나머지는 안은문장이다.

▶ 봄이 오면 / 꽃이 핀다. (이어진문장)

□ 앞 절 □ 뒤 절

★오답풀이

- ① 명사절을 안은문장
 ▶ [그 일은 하기가] 쉽지 않다.

명사절: (주어 생략)-일을(목적어)-하다(서술어)

③ 부사절을 안은문장

◆ 철수는 [밭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부사절: 땀이(주어)-밭에(부사어)-나다(서술어)

④ 인용절을 안은문장

◆ 우리는 [인간이 존귀하다]고 믿는다.

인용절: 인간이(주어)-존귀하다(서술어)

17. 다음 괄호 안에 병기된 한자 중에 ‘地’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김 주사는 심지(心地)가 고운 사람이다.
- ② ‘입추의 여지(餘地)가 없다.’라는 말은 가을과 상관없다.
- ③ 황룡사지는 절터라기보다는 궁지(宮地)라는 주장이 있다.
- ④ 풍년으로 산지(産地)의 쌀값이 전년보다 6% 정도 떨어졌다.

정답 ③

★정답풀이

궁궐터를 이르는 ‘궁지’의 ‘지(趾)’와 절터를 이르는 ‘사지’의 ‘지(址)’, 집터를 이르는 ‘대지(臺地)’ 또는 ‘부지(敷地)’의 ‘지(地)’가 각각 다른 한자 표기이다.

■ 궁지(宮趾): 궁궐이 있던 자리. ≒ 궁궐터·궁터02(宮-)

구별

■ 사지(寺址): 절이 있는 터. 또는 절이 있던 터.

■ 대지(臺地): 집터로서의 땅.

■ 부지(敷地):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 ‘대지09’, ‘터01’로 순화.

예 공장 부지/학교 부지/부지 확보/부지 매입/공원 부지를 마련하다/그 공터는 놀이터 부지로 결정되었다.

★오답풀이

① ■ 심지(心地): 마음의 본바탕. ≒ 마음자리·심전(心田).

구별

■ 심지(心-)

「1」등잔, 남포등, 초 따위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꼬아서 꽂은 실오라기나 형걸.

「2」남포, 폭탄 따위를 터뜨리기 위하여 불을 붙이게 되어 있는 줄.

「3」구멍이나 틈에 박는 솜이나 형걸.

② ■ 여지(餘地):

[I]「명사」남은 땅. 예 집 한 채는 충분히 지을 여지가 있다.

[II]「의존명사」(주로 조사 ‘의’나 어미 ‘-을’ 뒤에 쓰여)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희망.

예 개선의 여지가 많다/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다.

그의 행동은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그 일은 성공할 여지가 있다.

■ 산지(産地): 「1」생산되어 나오는 곳. ≒산출지. 예 산지 가격/쌀의 산지/성주는 참외 산지로 유명한 고장이다.

「2」사람이 출생한 땅. ≒산토(産土).

<참고>

■ 사지(死地): 「1」죽을 곳. 또는 죽어야 할 장소. 「2」죽을 지경의 매우 위험하고 위태한 곳.

18. 다음 중 ‘불법(佛法)에 귀의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는?

- ① 匹夫匹婦
- ② 樵童汲婦
- ③ 夫唱婦隨
- ④ 善男善女

정답 ④

★정답풀이

- 善男善女(선남선녀): 「1」 성품이 착한 남자와 여자란 뜻으로, 착하고 어진 사람들을 이르는 말.
「2」 곱게 단장을 한 남자와 여자를 이르는 말.
「3」 「불교」 불법에 귀의한 남자와 여자를 이르는 말.

★오답풀이

- ① ■ 匹夫匹婦(필부필부): 평범한 남녀.
- ② ■ 樵童汲婦(초동급부): 땀나물을 하는 아이와 물을 길는 아낙네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
- ③ ■ 夫唱婦隨(부창부수):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또는 부부 사이의 그런 도리.

19.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문학관이나 작가의 유적과 그 소재지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 ① 종로구의 윤동주 문학관
- ② 용산구의 황순원 문학관
- ③ 성북구 만해 한용운 심우장
- ④ 도봉구의 김수영 문학관

정답 ②

★정답풀이

황순원 문학관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나기마을길 24에 있다.

★오답풀이

- ① 윤동주 문학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119에 있다.
- ③ 한용운 심우장은 서울 성북구 성북로29길 24에 있다.
- ④ 김수영 문학관은 서울 도봉구 캐들로32길 80에 있다.

20. 다음의 밑줄 친 부분은 두 개의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낱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이상을 지녔다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남이 말하는데 걸다리 들지 마!
- ② 길눈이 밝아서 어디든 잘 찾아간다.
- ③ 그간의 노력으로 회사의 틀을 잡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 ④ 청년의 입에 거품이 일고 네 활개가 뒤틀리고 있었다.

정답 ④

★정답풀이

선택지 중에서 관용구가 아닌 예는 ‘활개가 뒤틀리다’이다.

■ 활개: 「명사」

「1」사람의 어깨에서 팔까지 또는 궁둥이에서 다리까지의 양쪽 부분.

㉠ 그는 신이 난 듯 두 활개를 휘저으며 걷기 시작했다./청년의 입에선 허연 거품이 일고 네 활개는 바동바동 뒤틀리고 있었다.

「2」새의 활짝 편 두 날개. ㉡ 학이 양쪽으로 활개를 쭉 퍼다.

<참고>

【관용구】 ■ 활개(를) 치다: 「1」의기양양하게 행동하다. 또는 제 세상인 듯 함부로 거들먹거리며 행동하다.

㉠ 폭력배가 활개 치는 세상에서는 마음 놓고 살 수 없다.

「2」부정적인 것이 크게 성행하다. ㉡ 음란 비디오가 활개 치다.

■ 활개(를) 퍼다: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기를 퍼다.

㉡ 아버지가 큰돈을 벌어서 돌아오신 후 우리 식구는 활개를 펴고 살게 되었다.

★오답풀이

① ■ 결다리「1」부수적인 것.「2」당사자가 아닌 주변의 사람.

[관용구]

■ 결다리 들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참견하여 말하다. 예 자꾸 결다리를 들고 나서는 친구가 얄미웠다.

■ 결다리(를) 끼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곁에서 참견하여 말하다. 예 자네가 무슨 상관인데 남의 일에 결다리를 끼고 나서지?

② ■ 길눈: 한 번 가 본 길을 잘 익혀 두어 기억하는 눈썰미.

[관용구]

■ 길눈이 밝다: 한두 번 가 본 길을 잊지 않고 찾아갈 만큼 길을 잘 기억하다. 예 산에서는 그는 길눈이 밝다.

■ 길눈이 어둡다: 가 본 길을 잘 찾아가지 못할 만큼 길을 잘 기억하지 못하다. 예 길눈이 어두운 그가 이곳을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③ ■ 틀: 「1」골이나 판처럼 물건을 만드는 데 본이 되는 물건.「2」어떤 물건의 테두리나 열개가 되는 물건.

「3」일정한 격식이나 형식.「4」사람 몸이 외적으로 갖추고 있는 생김새나 균형.「5」간단한 구조로 된 기계나 장치.

[관용구]

■ 틀을 잡다: 일정한 형태나 구성을 갖추다. 예 친구와 둘이서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제법 틀을 잡았다.

■ 틀이 잡히다: 격에 어울리게 틀이 갖추어지다. 예 서희는 어릴때부터 귀부인으로서 틀이 잡혀 있었다.